

공공도서관의 독서활동 활성화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주말이면 교외로 향하는 자동차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휴양지의 숙박시설은 예약이 아니면 현지에서 하룻 밤 쉬기가 힘들다고 한다. 더구나 연휴가 되는 날이면 이러한 현상은 더 극심해져 오고 가는 길은 교통 지옥이고, 현지 사정은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아 서로 얼굴을 대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라니 모두가 풍요속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들이다. 더 놀랄 일은 이러한 현상들이 전국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그 어느 나라 보다도 더 잘 입기 위해 점포마다 쌓여 있는 옷가지들을 보면 종류가 너무나 많아 기억하기 힘든 외국 상표가 붙은 의상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애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는 어떠한가? 전국 어디를 가도 고급 음식점이 여기 저기 들어 서 있어 외식은 보통이다. 또 잠자는 잠자리는 어떠한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 큰 집으로, 평수가 더 큰 아파트로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 투기붐까지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다 된 나라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다. 주의깊게 생각해 보면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이후 우리 민족의 의식주가 가장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껴 선진국이 다 된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사회는 가장 위태로운 위기 속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풍요를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무엇 보다도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동안 너무나 후진적인 정책으로 이끌어 왔으면서도 아직도 비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안드레 모로이스는 공공도서관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모든 국력을 모으고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에 소속되고,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도서관진흥법’을 다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하여 공공도서관 분야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는데도 잠자는 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1990년 4월, 238개 이던 공공도서관이 현재 329개로 증가 하는 등 발전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지만,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법의 시행과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너무 빈약하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공공도서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없다. 공공도서관은 건물만 세워 놓는다고 해서 지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몇 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해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화부가 문화체육부가 되면서 체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체육 시설을 세우는데 더 투자할 것 같기 때문이다. 체육 시설은 한 번 투자하면 즉 건물만 세워주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데, 공공도서관은 건물을 세워 주어도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육분야에 더 투자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공공도서관은 국가 정책으로 정부에서 특별한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으로 유명한 영국은 1950년대에는 세계 최고였는데, 그 후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발전이 뒤떨어져 1990년에는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서 1992년경 부터 다시 국가 정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강구하여 몇 년 사이에 세계에서 공공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는 유명한 국가가 되었다.

공공도서관에 정책적·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야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끼리 모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 토론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많은 독서회를 조직해 공공도서관을 이용 하도록 전개해야 국민들의 독서생활을 향상시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정부는 공공도서관 육성 정책에 너무나 인색해 왔으며 지금도 별 볼 일 없다.

공공도서관은 먼저 국민들에게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을 확충해야 한다. 물론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이용시키기 위한 업무가 우선이지만 이러한 업무는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행되어야 할 기본업무이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기본업무외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하고, 취학전 어린이 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폭 넓게 보고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주민을 도서관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먼저 각 계층별과 지역별로 다양한 독서회를 조직해 집에서 책을 읽고, 도서관에 와서는 발표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자신의 교양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며 지역문화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은 공공도서관 밖에 없다. 국민들의 독서생활화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국력이고 사회발전의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을 향한 문화를 형성해 주는 최선의 길이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에 투자하는 것 보다 공공도서관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는 경제부흥도 무너져 버릴 줄도 모른다.

김 승 환(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